

전남, 전훈팀 열기에 지역경제 '활기'

최근 두달간 전국 952개 팀 방문... 227억원 경제 파급효과 온화한 날씨·먹거리 등 입소문... 전용구장 등 인프라도 우수

동계 훈련을 위해 전남을 찾은 선수단이 전남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지훈련과 각종 스포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 952개 팀(연인원 24만명)이 전남을 찾은 것으로 중간 집계됐다. 이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227억 원에 달한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전남을 찾은 전지 훈련단은 매년 급증세다. 2020-2021 시즌(12월-2월)의 경우 6만 명이 불과했지만 2021-2022시즌에는 18만 명으로 급증했고, 2022-2023 시즌에도 34만 명으로 수직 상승했다.

올해도 이미 코로나19 이전인 2019-2020 시즌(25만 명)보다 많은 선수단이 전남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한 체육 인프라를 갖춘데다, 온화한 날씨에 먹을 거라·즐길 거리가 풍부한 것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매년 전지훈련을 위해 전남을 찾은 선수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전남도 분석이다.

전남의 경우 목포 종합경기장, 순천 팔마종합운동장, 광양 전남드래곤즈구장, 강진 축구전용경기장, 해남 우슬경기장, 영광 스포티움 등 우수한 체육시설이 들어섰고 지난해 열린 전국체전을 계기로 2149억원을 들여 지역 체육시설에 대한 신축 및 개보수를 진행했다.

전남도는 올해도 최적의 스포츠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유치 실적이 우수한 시·군을 선정해 체육시설 개보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시군과 협조해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설 방침이다.

시·군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면서 선수단 유치를 공을 들이고 있다.

해남군은 축구, 육상, 야구 등 6개 종목에 46개 팀, 연인원 1만 3000여 명의 선수단을 유치하면서 일본 주니어 대표팀 전문지도자를 초청해 육상 후보선수단의 기술지도를 지원하는 한편, 전문 트레이너 5명을 상주시키며 동계전지훈련 재활센터를 운영중이다.

장흥에서는 유소년 축구 30개 팀, 연인원 7000여 명의 선수단을 유치하면서 15명 이상 규모의 팀에 2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팀별 전남 도우미를 지정해 운영중이다.

완도군은 배드민턴, 축구 등 5개 종목 32개 팀, 연인원 1만 2000여 명을 유치할 예정으로, 지난해 개장한 해양치유센터를 활용한 수중운동, 수압마사지 등 치유테라피를 제공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체전을 계기로 올해는 더 많은 전지훈련팀이 전남을 찾을 것"이라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스포츠 관광 홍보에도 효과가 큰 전지훈련 유치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다음달까지 사물인터넷·인공지능 보급 사업 참여자 모집

전남도가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 보급 사업에 참여할 지역 소상공인을 오는 2월 29일까지 모집한다.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스마트기술 보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업체별로 키오스크, 디지털 메뉴·광고 보드, 테이블·스마트 오더 등 스마트 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도입 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본인 부담 금액은 부가세 및 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20%다.

지원 대상 주요 스마트 기술은 ▲디지털 메뉴·광고 보드, 웨이팅보드, 고객호출시스템 ▲키오스크 분야 비대면 결제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분야 ▲스마트오더 분야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분야

무인판매기, 출입인증시스템 등이다.

대상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사업자다. 올해 지원 규모는 1000곳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희망자는 2월 29일까지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홈택스·무인민원발급기)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여확약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매출액 증빙서류 등을 갖춰 시·군 소상공인 담당부서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메일,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경쟁에 어려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유통 농산물 2.5% 잔류농약 초과

지난해 4330건 중 108건 부적합... 3277kg 압류·폐기

광주시가 지난해 지역 내 유통 농산물 중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3277kg을 압류·폐기 조치했다.

21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농산물 4330건을 검사한 결과 108건(2.5%)이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했다.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과 각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된 경매 전·후 농산물 3089건, 대형마트·로컬푸드 등에서 유통된 농산물 1241건을 대상으로 잔류 농약 340개 항목을 검사했다. 이 가운데 도매시장 농산물 85건, 시중 유통 농산물 2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농산물 3277kg을 압류·

폐기했다. 부적합 농산물 품목은 상추(13건), 부추와 시금치(각 9건), 취나물(8건), 들깻잎(7건), 냉이와 열무(각 6건) 등 34개였다.

기준을 초과한 농약 성분은 포레이트(13건), 티부포스(12건), 디노테푸란(10건) 등 총 50종으로 확인됐다.

강인숙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부적합 항목 및 농산물이 다양해짐에 따라 도매시장뿐 아니라 식자재마트 등 다양한 유통 경로로 소비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정확하고 촘촘히 수행하고 있다"며 "믿을 수 있는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검사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지역에서 2015년 이후 9년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남구 원산동의 한 기러기 농장이 방역기관에 의해 출입이 통제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서 9년만에 고병원성 AI 발생

남구 기러기 농장서 확진...市, 살처분 등 확산 방지 총력

광주에서 9년 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방역 당국이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광주 남구 기러기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 사례가 나

왔다. 광주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2015년 오리 농장 이후 처음이다.

광주시와 남구는 발생 농장 반경 500m 내 살처분 등 관리지역, 반경 3km 내 농가 5일 간격 정밀검사 시행 등 보호지역, 반경 10km 내 예찰 지역을 설

정해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광주시는 또 지난 19일부터 기존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상황실을 AI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하고, 시장을 본부장으로 행정부시장(차장), 경제창업국장(통제관), 농업동물정책과장(상황 총괄 담당관) 등이 대책 마련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상황 판단 회의를 열고 방역, 역학 조사, 철새 서식지 예찰 활동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아이들에 옛 이야기...어르신에 사회 참여

광주시 '이야기할머니사업' 다음달 16일까지 참여자 모집

광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추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사업'에 참여할 이야기할머니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사업'은 3000여명의 할머니가 전국 8600여 개 유아교육기관에서 아이들에게 옛이야기와 선현미담 등을 들려주는 사업이다.

올해 광주에선 총 18명의 이야기할머니를 선발하며, 서류심사와 이야기 구연 능력을 포함한 면접시사를 거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1950년 1월 1일-1968년 12월 31일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 여성으로 평소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거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방법은 이야기할머니사업단 누리집(www.storymama.kr)에서 선발 공고문을 확인한 후 2월 16일까지 지원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온라인

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면접전형에 합격한 예비 이야기할머니는 4월부터 10월까지 60여 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최종평가를 거쳐 이야기할머니 활동 자격을 얻게 된다. 이후 5년간 거주지역 인근 유아교육기관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을 하게 된다. 지원서 접수 등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 누리집(www.storymama.kr) 또는 이야기할머니사업단(080-751-07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유아에게는 옛이야기를 통해 전통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여성 어르신에게는 자원봉사를 통한 보람과 사회 참여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는 계기를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분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